

“설날 연휴, 작은 교회 방문·봉사하고 친교를”

행동하는 신학자들의 모임인 샬롬나비, 2018년 설날 논평

설날은 우리 민족의 세시(歲時) 풍속 가운데 한가위와 더불어 가장 큰 명절이다. 설날에는 조상에게 차례(茶禮)를 지내고, 친척이나 이웃 어른들에게 인사드리는 것이 고유의 풍습이다. 명절을 지키는 세 시풍속은 우리 삶의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는 데 리듬을 주고 재충전하는 좋은 시간이다. 멀리 떨어져 있던 부모 친척들이 만나고 집안 곳곳을 청소하며 아들 딸 손자손녀들이 만나는 시간이다. 살롬나비는 민족 최대 명절의 의미를 다음 같이 천명한다.

1. 오늘날 최대의 번영을 주셔서 '30·50 클럽'에 들게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자.
올해 한국은 지구촌의 선진국인 국민 소득 3만불 인구 5천만의 그룹에 들어가게 된다고 한다. 지난 60년전 지구상의 가장 빈국이었던 한국이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 오늘날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고 1988년 하계 서울올림픽에 이어 2018년 동계 평창 올림픽을 개최하게 된 것은 우리의 노력에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일반은총이 아닐 수 없다. 올해 설날은 대한민국이 동계 평창올림픽을 개최하고 세계 시민들을 초청하여 동계 스포츠 행사를 하는 지구촌 인류의 평화와 화합 축제를 거행하는 기간(2월 9일-25일)이다. 핵 확산 금지조약 위반하여 핵무기 ICBM 개발 최종단계에 도달하여 유엔 제재를 받는 북한도 참가하는 민족화합 축제이기 때문이다. 신자들은 설날 가족예배 시에

우리 민족에게 베푸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하겠다.

2. 설날은 우리 겨레에게 가족, 이웃, 민족의 공동체 됨을 확인하는 시간이다.

설날은 음력으로 새해의 첫 날을 기리는 명절이다. 원일(元日), 원단(元旦), 세수(歲首), 연수(年首), 단월(端月)이라고도 한다. 이 날을 통해 겨자 생활하는 자녀는 고향을 찾아 부모님을 찾아뵙고 문안드리며 못 다한 효를 행하고 바쁜 일상으로 함께 하지 못했던 형제자매가 오랜만에 함께 모여 회포(懷抱)를 풀며 이웃과 놀이문화도 함께하며 공동체의 정을 확인하는 화합의 날이다. 이 날들을 통하여 우리는 같은 민족 공동체라는 일체감을 가지게 된다. 사랑은 모든 하늘을 덮는다고 했다. 이번 설날은 이러한 공동체 의식에 바탕한 사랑으로 대화와 소통의 장이 이루어져 하나됨을 이루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3. 개인주의 아닌 가족 공동체 의식을 확인하는 명절로 삼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세시풍속은 우리나라의 고유의 문화를 형성하여 '우리 의식'의 아름다운 전통을 형성하여 왔다. 어른에 대한 공경, 가족 간의 화합과 협동, 온 동네의 친지 분위기 등은 우리 민족의 높은 동질성 회복을 위한 신앙과도 같은 것이었다. 이런 개념의 연장선상에서 두레나 품앗이 제도도 생겨 마을마다 화합의장을 이루는 독특한 정신문화를 형성했다. 서양 문화가 너와 나의 한계를 분명히 하여 개인주의를 발전시켰다면 우리는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위하여 자기희생을 전제로 '우리 의식'을 발전시켜왔다. 극단의 개인주의화로 가정이 해체되어 가고, 사회가 과편화되어 가는 시대상황에서 이러한 가족 공동체 의식의 회복이 필요하다.

4. 명절 휴일 기간이 대화와 소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민족 최대명절인 이번 설날은 이러한 대화와 소통의 현장이 되기를 바란다. 후기산업시대 각자가 맡은 전문적 일로 생활에 바쁜 가족들과 친척들이 명절 휴일 기간을 통하여 다시 만나는 시간은 끊어진 대화와 사랑과 화해의 소통을 가지는 귀한 기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가정과 교회와 사회의 각종 모임에서 우리 민족 저변에 깔려 있는 민족 정서인 나리를 위한 단결과 협동과 이웃 사랑으로 사회갈등을 잘 극복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5. 설날을 기해 탈북민들을 초대하고 대화를 나누고 이들이 잘 정착하도록 도와야 한다.

우리는 3대에 걸친 독재정권 아래 신음하고 있는 북한 겨레를 생각해야 한다. 북쪽의 겨레들은 혈연은 우리와 같을지라도 언어, 사회적 문화의식, 삶의 조건 등에 있어서 우리와 상당히 다른 상황 속에서 이미 73년을 넘어서고 있다. 가족들이 만나는 설에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실향민의 아픔을 느끼는 겨레들이 있다. 이러한 슬픔과 아쉬움을 달래기 위하여 남한에 와 있는 탈북민에 대한 동포애를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민족 공동체성을 이번 설날에 다시 확인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특별히 교회가 이 일에 앞장서서 탈북자들을 위한 환영과 대화 자리 마련해야 할 것이다. 탈북자들이 교회를 동경하고, 위로받고, 남한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돋는 것이 교회의 중요 과제이다.

6. 열린 민족주의가 되어 다문화 가정들을 포용해야 한다.

다문화사회로 접어든 지금, 다문화가족을 포용하는 설 명절이 되어야 한다. 설 명절은 다문화 가정들도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이들을 향하여 열린 마음과 행사가 있어야 하겠다. 우리 안에는 언어와 혈연과 종족이 다른 이주민 상당수가 함께 거주하고 있다. 우리 가운데 들어온 이주민들을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 수용하고 이들이 가진 문화적 다름을 우리 사회로부터 많은 우려와 비판을 받게 되었다. 교회는 계속적인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현실이다. 설날을 계기로 교회의 초등부, 청소년들과 장년부는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찾아서 설음식과 선물을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들에게 전하여야 할 것이다. 방문과 만남은 지속적이며 정례화되어야 한다.



용하고 이들이 가진 문화적 다름을 우리 사회로부터 많은 우려와 비판을 받게 되었다. 교회는 계속적인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현실이다. 설날을 계기로 교회의 초등부, 청소년들과 장년부는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찾아서 설음식과 선물을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들에게 전하여야 할 것이다. 방문과 만남은 지속적이며 정례화되어야 한다.

7. 교회는 정의로운 인간 관계를 강조 실천하여 폐마른 세상의 악식처가 되어야 할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과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여 지역사회 화합의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 한국 교회는 남다른 혼신과 충성을 통하여 세계 교회사에 유례를 찾아볼 수 있도록 이들을 향하여 열린 마음과 행사가 있어야 하겠다. 우리 안에는 언어와 혈연과 종족이 다른 이주민 상당수가 함께 거주하고 있다. 우리 가운데 들어온 이주민들을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 수용하고 이들이 가진 문화적 다름을 우리 사회로부터 많은 우려와 비판을 받게 되었다. 교회는 계속적인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현실이다. 설날을 계기로 교회의 초등부, 청소년들과 장년부는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찾아서 설음식과 선물을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들에게 전하여야 할 것이다. 방문과 만남은 지속적이며 정례화되어야 한다.

사회 기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안전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섬김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소망입니다'는 문구가 교회 안에서 구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들려와야 할 것이다.

8. 설 연휴 기간을 고향교회와 지역교회를 방문하고 봉사하고 살리는 계기를 만들자.

이번 설날을 계기로 '우리의 공동체가 개인과 사회와 정치 전반에 회복되어야 할 것이다. 진정한 공동체 의식으로서 '우리 한국인' 우리 이웃 등이 회복되길 바란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태어난 고향교회를 방문하거나 지역연고의 작은 교회를 방문하여 봉사하고 이들과 교제하고 이러한 고향과 지역교회들이 건강하게 성장 발전하도록 협력해야 할 것이다.

My KIDS

자구촌 어딘가에 있을 나와 꼭 닮은 아동을 찾아보세요!
그 아이의 꿈과 희망을 나의 손 끝으로 지켜줄 수 있습니다.

1. 검색창에 '월드비전 마이키즈'를 검색해주세요.

2. 모바일 mykids.wv.or.kr을 접속해보세요.

3. 월드비전 마이키즈

4.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5.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6.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7.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8.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9.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10.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11.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12.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13.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14.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15.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16.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17.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18.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19.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20.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21.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22.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23.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24.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25.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26.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27.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28.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29.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30.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31.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32.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33.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34.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35.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36.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37.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38.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39.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40.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41.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42.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43.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44.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45.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46.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47.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48.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49.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50.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51.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52.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53.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54.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55.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56.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57.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58.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59.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60.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61.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62.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63.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64.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65.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66.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67.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68.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69.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70.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71.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72.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73.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74.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75.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76.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77.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78.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79.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80.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81.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82.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83.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84.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85.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86.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87.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88.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89.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90.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91.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92.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93.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94.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95.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96.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97.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98.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99.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100.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101.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102.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103.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104.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105.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106.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107.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108.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109.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110.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111.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112.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113.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114.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115.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116.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117.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118.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119.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120.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121.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122.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123.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124.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125.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126.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127.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128.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129.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130.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131.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132.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133.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134.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135.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136.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137.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138.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139.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140.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141.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142.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143.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144.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145.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146.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147.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148.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149.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150.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151.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152.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153.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154.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155.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156.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157.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158.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159.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160.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161.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162.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163.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164.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165.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166.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167.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168.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169.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170.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171.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172.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173.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174.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175.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176.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177.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178.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179.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180.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181.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182.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183.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184.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185.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186.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187.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188.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189.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190.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191.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192.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193.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194.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195.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196.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197.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198.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199.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200.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201.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202.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203.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204.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205.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206.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207.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208.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209.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210.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211.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212.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213.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214. 월드비전 투표를 해주세요

215. 월드비전

고난의 계절(마 4:1-11)



(마 4:1-11, 개정) [1] 그 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로 가사 [2] 사십 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3]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

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4]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땅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임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5]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6]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여 이 돌들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9] 이르되 만일 내게 옆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10]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11]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매년 사순절 첫째주일에는 오늘 본문으로 설교하는 게 개신교의 오랜 전통입니다. 부활절 전 고난기간이 왜 굳이 40일일까요? 그것은 주님의 40일간의 광야고행을 그 기원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첫째주일에는 늘 주님의 40일간의 금식기도와 마귀에게 당한 시험의 의미를 되새기는 게 교회의 오랜 전통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은 동양권에서는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주님이 마귀에게 당한 시험을 다른 말로 하면 유혹을 당하셨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닌 세 번씩입니다. 주님이 마귀에게 유혹

을 받으셨다는 것은 어쨌든 마음이 흔들렸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의문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 같은 분이 마귀에게 유혹을 당하실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공자님은 눈에 불혹(不惑)이라고 했습니다. 더는 유혹을 받지 않는 나인인데 40세면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당시 주님은 아직 40이 아니어서 수양이 부족해 유혹을 받으셨습니까? 공자님에 따르면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불혹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 순간까지 유혹에 시달립니다. 과제가 크면 허수를 그 유혹에 그만듭니다. 주님은 처음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마귀의 유혹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앞두고도 유혹에 시달립니다.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처절하게 기도하며 이고난의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유혹에 시달린 겁니다. 당시 주님이 당한 유혹은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세 가지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주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겪고 당하는 가장 보편적인 유혹이라는 점입니다. 그런

데 주님은 우리와 똑같이 당하면서도 가장 모범적이고 성공적으로 이기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시험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첫 시험은 돌을 떡이 되게 하라는 시험입니다. 주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10]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아 밭에 돌에 부딪치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것은 정신적인 시험, 명예심, 허영심, 영웅심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도 얼마나 교활한 시험인지 모릅니다. 주님은 지금 공생애를 앞두고 계십니다. 만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도 텔끝 하나 상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많은 이들이 주님 앞으로 몰려왔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방에 사람들의 인기를 한몸에 받을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기회입니다.

마는 가장 절실한 생존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보란 듯이 돌로 떡을 만들어 주린 배도 채우고, 보란 듯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4절에서 정답을 제시합니다. “사람이 땅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마귀는 떡 제일주의, 물질지상주의, 맘몬

이즘을 강요합니다. 이것이 이 시험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세웁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떡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떡이면 다 된다고 합니다. 떡만 있으면 누구나 최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현대인은 모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은 팔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 베린에서의 후예들입니다. 우리는 팔죽 한 그릇이면 양심도 신앙도 하나님도 팔아버릴 테세가 되어 있습니다. 짐승에게는 떡만 있으면 됩니다만,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떡만 필요한 육체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하는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현실은 어떻습니까? 모두 떡에만 미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둘로 떡을 만들습니까? 그럼에도 보십시오. 우리 사회의 온갖 불법, 편법, 투기, 뇌물, 비자금 등은 모두 둘로 떡을 만들자는 반칙이요 억지입니다. 우리는 자기 먹을 것을 전뜩 쌓아 놓고도 그렇게 하는데 주님은 40일을 굶으시고도 떡으로만 이라는 마귀의 유혹을 칼처럼 물리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평생 뼈에 새기고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입니다. 5절 이하입니다. “[5]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6]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아 밭에 돌에 부딪치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것은 신앙 좋은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

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임을 증명하겠다고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네 믿음이 좋다고 하시며 살려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런 사람의 장난이나 영웅심, 허세에 놀아나지 않습니다.

번지 점프를 하면 살아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파트 꼭대기에 올라가 뛰어내리면 백이면 백 다 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의 공명심 따위를 쟁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사람들은 주님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내려와 보라고 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당장 내려왔을 법도 한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두치오 디 부오니세나(Duccio di Buoninsegna, 1255-1319), 광야에서 유혹 받으시는 예수(The Temptation of Christ on the Mountain, 1308-1311), 나무에 템페라, 미국 뉴욕, 프리 캠브론(New York, Frick Collection)

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살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자 죄입니다. 누가 자꾸만 나를 사랑하나며 시험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한다는 표가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대한 회의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물리치신 것입니다.

어떤 신앙 좋은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

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임을 증명하겠다고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네 믿음이 좋다고 하시며 살려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런

사람의 장난이나 영웅심, 허세에 놀아나지 않습니다.

번지 점프를 하면 살아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파트 꼭대기에 올라가 뛰어내리면 백이면 백 다 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의 공명심 따위를 쟁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사람들은 주님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내려와 보라고 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당장 내려왔을 법도 한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9] 이르되 만일 내게 옆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것은 둘로 떡을 만들라는 물질적 시험이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정신적 시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배반하라는 영적 시험입니다. 그 시험의 고도를 보십시오. 땅에서 성전 꼭대기, 저 높은 산입니다.

이것은 유혹의 강도와 정도를 뜻합니다. 마지막 시험도 눈앞에 펼쳐진 모든 영화와 부귀가 한 번에 내 것이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얼마나 식은 죽 먹기 시험인지 모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절 한 번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분만 섬겨야 한다고 하십니다.

주님께는 하나님만 경배의 대상입니다. 주님은 떡 시험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내세우셨는데, 마지막 시험에서도 하나님만을 내세우십니다. 우리가 둑하면 왜 마귀의 시험에 넘어갈까요? 하나님만 이라는 절대가 약하고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주님처럼 하나님만 이라는 절대를 놓치지 맙시다. 이것이 흔들리면 모든 게 다 무너집니다.

마귀의 유혹에는 배신이나 면역이 없습니다. 그 유혹은 날마다 순간마다 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나 주님은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처럼 우리도 이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부디 갈수록 더 교활해지는 마귀의 물질적, 정신적 그리고 영적 유혹을 주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만이라는 절대적인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기원합니다.

기독일보

www.christiandaily.co.kr

사장·발행인 김광수 일반국장 장세규 교계판국장 김규진

136-075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53 / 전화번호 02-739-8119 / 팩스 02-739-8120

대표메일 corp@cdaily.co.kr 기사제보 press@cdaily.co.kr 구독신청 1년 180,000원 / 6개월 90,000원 / 1개월 15,000원

광고 및 구독문의 070-4352-2480 대표구좌 SC은행 130-20-571787 우리은행 1005-301-884992

미주 기독일보 www.christianitydaily.com

1990년 7월 19일 창간된 기독일보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우체국 예금에서 우리 모두를 위한 미래의 꿈을 함께 하겠습니다.

똑똑한 금융 우체국으로 시작하자!

더 스마트해진
우체국 예금

“하나님과 만나는 과정” (출 29:25-45)



출애굽기 29장의 내용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취임하기 위해서 밟아야 하는 몇 가지 절차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며 (히8:1)

제사장의 4명의 아들은 구원 받은 성도들의 모형입니다. 예수께서 공생애에 들어가실 때부터 승천하실 때 까지는 유통에 의한 대제사장이 존재 했지만 부활하신 이후부터는 예수께서 친히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으므로 이제 유통에 의한 제사장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히7:22)

비록 대제사장의 실체는 예수그리스도 이었으나 예수께서 유통과는 상관없는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은혜의 제사장이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죽음으로 인하여 영원히 살지 못하므로 죄의 변화가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그 속죄의 완성이 불변하고 동시에 우리들의 구원도 영원히 안전한 것입니다 또한 복음으로 부를 받아 영적인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엡 4:1-2)

1. 손, 발을 씻는 의식

아론과 그 아들들은 성전에서 일하기 전에 성막 앞에서 목욕을 하였는데 이 의식은 제사장으로 임명 받을 때 오직 한번 만행해 졌으나

손발을 씻는 의식은 물두명에서 항상 하도록 하였습니다. (출 30:17-21) 유월절 만찬을 마치신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은 과정에서 베드로와 다음과 같은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요13:10) 예수께서 말씀하신 목욕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구원을 의미하고 ‘발을 씻는 의식은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생활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물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하게 하시고” (엡 5:26)

“너희는 내가 일러 주는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안에 거하라 (요15:3) 저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죄를 씻을 수 있는 능력은 오직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이 절차 속에 배어있는 성결과 거룩함은 쾌락과 음란과 사치가 활행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 커다란 영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2. 거룩한 옷을 입을 자.

율법에 따른 제사장들은 먼저 깨끗하게 함을 받아야 했습니다.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기 전에 제사장 먼저 거룩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거룩한 생활을 요구 하십니다.

몸을 깨끗이 씻은 제사장에게 이제 옷을 입힙니다. 보석이 달린 흉포를 달고 예포에 끈을 끼우고 머리에 관을 써우고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이 쓰인 성袍를 달아줍니다. 제사장의 의복을 입은 아론과 그 아들들은 이제 근사한 모습으로 변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 중대한 직책을 맡기는 취임식이니 만큼 경건함과 거룩함이 절개 깔려 있음은 당연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당신을 찾아오는 자를 양자로 삼으시고 이처럼 화려하고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제사장의 옷을 입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제 기름부름이 행하여집니다.

이 기름 부름은 특별히 성별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아닙니다.

그래서 교인을 성도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특별히 지금은 말세 지말을 당한 세대가 되어서 음란하고 음탕하고 죄악으로 부패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더욱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벧후 3:10)

“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엡 5:26)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안에 거하라 (요15:3) 저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 다음은 기름 부름을 받는 순서입니다. 기름 부름은 오늘날의 성령 충만을 의미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세속에 물들지 않고 거룩함을 유지하며 신앙 생활에 승리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람기름 애다 온갖 향료를 가입하여 제작된 특수 제품인 관유 기름이 제사장에게 부어지자 기름이 수염에 흘러 적시고 (시133:2) 마침내 온 몸에 흘러 내렸습니다. 기계에 기름을 치면 기개는 순조롭게 돌아가는 것같이 사람이 성령의 능

력을 받으면 하나님의 일을 순조롭게 잘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런 의식을 통과한 후에 수송아지를 잡아 그 머리에 안수합니다. 이것은 아론의 죄를 송아지에게 전가시키는 행위입니다.

이제 아론의 죄를 전가 받은 송아지는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로써 아론의 죄는 해결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죄도 그리스도께 전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희생을 당하신 것입니다.

3. 매일의 제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제단에서 양을 바치되 각각 소제와 “자손 대대로 드릴 끊임 없는 번제를 드려” 화제를 삼으라고 하였습니다. (38:42)

왜 이렇게 끊임없이 제사를 드려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사 43:7)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 된 성도는 예배를 드리는데서 출발이 되어야 하고 또한 예배를 드리되 하나님께 흡향 하시도록 드려야 합니다.

옛날 노아가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은 다음에 방주에서 내려와 한일이 무엇인가? 짐짓는 일이었습니까? 아니면 농사짓는 일 아니면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이나 야외로 놀라가는 일이었습니까?

제일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1년 17개월 동안 방주 안에 갇혀 있었으니 얼마나 답답하였겠습니까?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기뻐하며 먹고 즐기고 싶어 겠지만 노아는 그런 일을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창 8:20절에 보면 노아가 예호와를 위하여 양을 잡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새 종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예호와께서 그 향기를 흡향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성도의 우선 과제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부단히 올려 드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향 하시도록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드려서는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노아가 번제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흡향 하셨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받으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다?

본문 42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대대로 예호와 앞에 성문에서 드릴 번제니라”고 했습니다.

성막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에 교회를 상징합니다.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합니까?

본문 30절에 “성소에서 섬길 때”라고 기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섬긴다는 말은 바로 원어로는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성전에서 드려야 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 11편 4절에 예호와께서는 그 성전에 계시니라. 하박국 2:20절에도 오직 예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자 할 지니라고 했습니다. 시편 150:1절에도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 할 지니라고 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여야 합니다. 본문 32절에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고 했습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해야 그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본문 43절에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위하여 거룩하게 될 지니나 야곱은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나므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야곱이라는 뜻은 육십 장이 사기꾼, 거짓말쟁이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므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임재 하심으로 “때때로 만나고 말 하리라”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주는 축복은 그의 생명과 은혜 안에 사는 삶과 영광을 드러내며 죄에서 놓여 자유를 얻고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충분한 것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를 행복하게 해 줄 더 이상의 아무것도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부단히 올려 드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가짜 신비주의를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기독교가 하나님의 계시(성경)에 기반한 신비한 종교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신비를 추구하는 신비주의는 주관적 요소가 개입하면서 개인의 초월적 누미노제 체험을 통해 바른 성경관과 계시에서 이탈하여 주관적 체험으로 흐를 위험성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교회는 바른 체험과 성경과 다른 신비 체험을 어떻게 구별해야 할까? 기독교 신비주의의 역사 속에서 교회는 신비 체험에 대해 다음의 몇 가지 분별의 도구를 도출해 낼 수 있다고 본다.

상 그린 신앙적 체험은 없었다고 단언한 것을 주목하다. 완전한 희고 예쁜 이빨이 아닌 하나님께서 치과 의사들이나 하는 그런 불완전한 금이빨을 왜 주시는가? 그건 신앙의 모조품이요 짹통 신비 곧 종교적 신비주의에 불과하지 점통 기독교는 전혀 아닌 것이다. 그리스도교 역사 속에서 나타난 적이 없던 영종하고 새로운 신비 체험(보기 일명 “토론토 축복” 등)이 나타나면 검증이 필요한 이유다.

◆넷째 성경 기본(핵심) 교리와 내용을 참阅하면 안 된다(계 22:18)

신비 체험이 성경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특별 계시적 체험이 아닌지 검증해야 한다(계시론). 인류를 믿음으로 인도하고 구원에 이르는 근본적 계시(특별 계시)는 성경 속에서 이미 모두 완성된 것이다. 신비 체험이 이 계시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즉 개인의 주관적 체험이 성경과 어긋나서 자신과 이웃의 신앙의 근간을 허무는 일이 없어야 한다.

◆둘째 기독론과 관련하여

성경적 기독론을 훼손하는 체험은 아닙니다 살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에 대한 복음적 기독교 교리에 탈선을 일으키는 신비적 체험은 조심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기독론에 대한 도전은 성경에 대한 훼손이요 믿음의 반역이다. 과거 한국에서 천국 체험 간증이 대유행했던 일이 있었다. 어떤 자칭 선교사(물론 나중에 알고 보니 가짜였다)는 천국에 가 보니 예수님께서 성도들이 머물 맨션을 열심히 건축하고 있음을 목격했고 자신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댄스를 주었다는 활동들을 전하고자 했던 것이다. 온에는 커녕 심각한 신성 모독의 책이었다. 이런 신비 체험에 절대 속지 말아야 한다. 삼위일체 제 2위 하나님하신 그리스도에 대해 왜곡된 믿음을 주입하는 것은 신비주의자들이 자주 범하는 왜곡이다. 이것은 신성모독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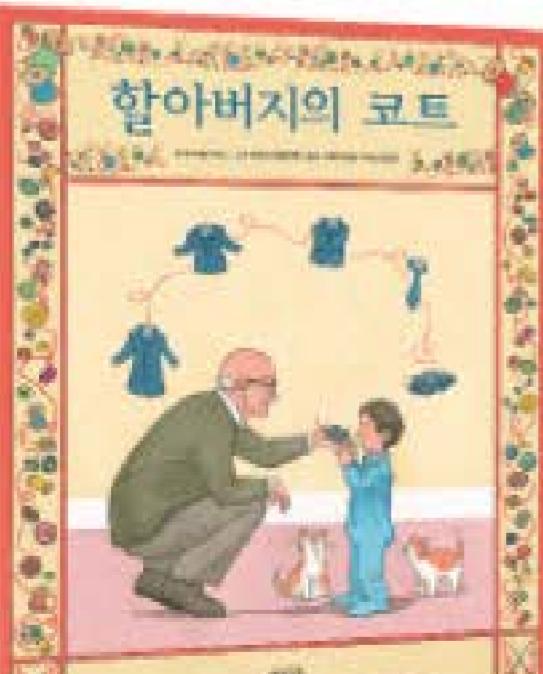
◆셋째 교회 역사의 중요성

어떤 신비 체험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용 가능했던 신비 현상이나 체험이 있는가를 검증하는 일은 매우 아주 중요하다(교회사와 교리사). 기독교 역사에는 많은 신비적 현상과 개인적 체험들에 대해 그 진위를 평가하여 왔다. 개인의 신비 체험이 이 역사적 평가의 기준들을 넘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불순한 체험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한국교회의 소위 “금가루 현상”이나 “금이빨 소동”에 대해 개혁신학자 서철원 박사(전 총신대 신대원장)가 기독교 역사

◆넷째 신학 용어는 반드시 신학적 평가를 받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성경이나 정통 교리보다 신비적 감정이나 체험이 앞서거나 기타 교리적 논쟁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낯선 단어를 분별없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살펴보아야 한다. 성경은 은사를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들픈 감정이나 흥분 같은 은사가 다가 아니다. 은사는 반드시 성경과 그 열매로 판단 받아야 한다. 또한 신비 체험이 새로운 낯선 단어들을 창출해내는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 경의 모든 예언은 사로이 풀 수 있는 게 아니다(벧후 1:20). 교회는 성경과 더불어 역사 속에서 새로운 신학적, 교리적 용어에 대해 치열한 논쟁과 토의를 거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교리를 구성하여 왔다. 비록 과학과 기술의 발달 속에서 다양한 단어들이 탄생하였더라도 이것들을 새로운 신학적, 교리적 용어로 활용하는 것은 극히 조심해야 한다. 따라서 마리아의 염색체와 DNA, 예수의 염색체 숫자, 마리아의 월경, 왕의 기도, 신사도, 빙아드 운동, 구도자, 위주의 열린 예배(열린 교회가 아님), 제 2 선민론, 제 2 히브리민족 등과 같은 성경적으로 전혀 의미가 없는 낯선 단어들이 신비주의와 결합 할 때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닌 불순한 폭발력을 가지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신학 전개에 있어 낯선 용어의 사용은 성령의 사람들을 가운데 치열한 신학적 논증 속에서 달궈져서 그 진위를 평가 받은 다음 정금같이 나와야 하는 것이다.

코트는 없어졌지만, 검소한 삶의 자세는 전통으로 남았어!



스쿨 라이브리 저널 선정 '2014 최고의 어린이책'

이국땅에서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짠편한 코트 한 벌.
할아버지가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그 코트를 입었어요.
남고 해져서 더 이상 입을 치웠던 편이 된 코트를 버렸나고요?
절대 그럴지 않아요! 금제, 남은 코트로 재킷을 만들고,
또 재킷으로 조끼를 만들고, 그 조끼로 넥타이를 만들었대요.
할아버지지는 그때마다 이렇게 외쳤어요.
“아무렴, 여전히 쓸 만해.”

라祜고, 모래되고, 물풀玷된 것도 소중히 다루고, 오래 긴지하면 특별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변신했어.
진정한 영광은 내가 만들고 가꾸는 거예요. — 한마디자이너·보자기 미디어스토 이효재

